

요셉과 주인의 아내 이야기가 드러내는 폭력*

김유기(서울여대)

1. 들어가는 말

창세기 39장은 흔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이 그 유혹을 물리침으로써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으로 인식된다. 스피이저(E. A. Speiser)는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매력을 알아차리고 그를 유혹하려고 했다”라고 한다.¹ 베스터만(C. Westermann)은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 대해 욕망을 가졌고 그를 유혹하고 싶어 했다고 한다.² 웬햄(G. J. Wenham)은 주인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려 했지만, 그는 윤리

* 이 논문은 서울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한 것임(2023-0002).

1 E. A. Speiser, *Genesis: Introduction, Translation, and Notes* (3d ed.; AB 1; Garden City, NY: Doubleday, 1987), 304.

2 Claus Westermann, *Genesis 37-50* (John J. Scullion, S. J., trans.; CC; Minneapolis: Fortress, 2002), 64, 69.

적이고 신학적인 논증으로 그의 제안을 거부했다”라고 한다.³ 브루거만(W. Brueggemann)은 “유혹을 거절하는 요셉의 인격과 성품”에 관해 말한다.⁴ 천사무엘은 창세기 39:7-12를 정리하면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내용”이라고 한다.⁵ 또한 “38장에서 유다는 성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지만, 39장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다”라고 한다.⁶ 레빈(C. Levin)도 주인의 아내의 행동을 “유혹(seduction)”이라 표현했으며 포스텔(S. D. Postell) 역시 “핍(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⁷ 해밀턴(V. P. Hamilton)은 주인의 아내를 “유혹하는 아내(seductive wife)”라고 지칭한다.⁸

한편 뢰머(T. Römer)는 이런 표현을 피하면서 “이집트 여자가 요셉을 괴롭힘(Joseph’s harassment by the Egyptian woma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⁹ 브렛(Mark G. Brett)은 이 이야기를 단순히 성적 욕구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힘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문제로 본다.¹⁰ 골딩게이(John Goldingay) 역시 이 이야기에서 힘을 가

-
- 3 Gordon J. Wenham, *Genesis 16-50* (WBC 2; Dallas: Word, 1994), 377.
- 4 윌터 브루거만, 「창세기: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한 주석」(강성열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470. 원제는 Walter Brueggemann, *Genesis* (Interpretation;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 5 천사무엘, 「창세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489.
- 6 윗글, 490.
- 7 Christoph Levin, “Righteousness in the Joseph Story: Joseph Resists Seduction (Genesis 39)”, Thomas B. Dozeman(ed.), *The Pentateuch: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Current Research* (Tübingen: Mohr Siebeck 2011), 223-240; Seth D. Postell, “Potiphar’s Wife in David’s Looking Glass: Reading 2 Samuel 11-12 as a Reflection Story of Genesis 39”, *Tyndale Bulletin* 71.1 (2020), 107 n. 30.
- 8 Victor P. Hamilton, *Handbook on the Pentateuch* (2d ed.;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5), 123.
- 9 Thomas Römer, “Genesis 39 and the Composition of the Joseph Narrative”, *Hebrew Bible and Ancient Israel* 8.1 (2019), 52.
- 10 Mark G. Brett, *Genesis: Procreation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OTR; London: Routledge,

지고 있는 여자가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여 상대를 성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한다.¹¹

「표준국어대사전」은 ‘유혹(誘惑)’에 관해 두 가지 정의를 제시한다. 첫째는, “피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끌”이고 둘째는 “성적인 목적을 갖고 이성(異性)을 꺾”이다.¹² 요셉과 주인의 아내 이야기에 관해서 ‘유혹’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둘째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요셉이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꺾었고 요셉은 그 꺾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본다. 그들의 관점에서 요셉은 남의 아내의 성적 유혹을 물리친, 도덕적으로 뛰어난 인물로 그려진다.

그렇다면 본문은 요셉이 어떤 경험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언뜻 생각해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말과 행동을 유혹이라 볼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든다. ‘유혹’이라는 단어는 보디발의 아내의 말과 행동을 정의하기에 적절한 단어일까? 본문이 정말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 글에서는 요셉과 그 주인의 아내 이야기의 최종 본문을 하나의 완결된 문학적 단위로 보는 관점에서 본문의 특징적인 면모를 들여다 본다.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이 지시되는 방식에 주목하면서 그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 관한 서술자의 시각을 드러내고, 보디발의 아내의 말과 행동 및 요셉의 말을 분석하면서 암논의 말과 행동 및 다말의 말과 비슷한 점을 비교한다. 또한 잠언에 나오는 성적인 유혹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행동을 ‘유혹’으로 정의할 수 있을지 의문

2000), 115.

11 John Goldingay, *Genesis* (BCOTP;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20), 599.

1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유혹2(誘惑)”,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72179&searchKeywordTo=3 (2023. 1. 20.).

을 제기한다. 이러한 탐색 과정에서 요셉은 주인의 아내에게 유혹받는 젊은 남자가 아니라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에서 고통을 겪는 약자로 드러날 것이다.

2. 최종 본문의 의미를 찾아서

요셉은 창세기 37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집트로 팔려 간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잠시 중단되었다가 39장에 다시 이어진다. 창세기 39장은 전통적인 문서가설에서 흔히 J로 분류된다. 요셉 이야기의 다른 부분과 달리 이 장의 2, 3, 5, 21, 23절에 신의 이름이 ‘야훼’로 나오기 때문이다.¹³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39장이 나중에 첨가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요셉 이야기의 편집 과정에 관한 레빈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요셉 이야기는 두 차례에 걸쳐 편집되었다. 처음에 J가 편집했고 나중에 요셉의 의로움을 강조하는 “의로움 편집본(righteousness edition)”이 나왔다.¹⁴

최근 베킨스(P. Bekins)는 요셉과 주인의 아내 이야기에 등장하는 요셉을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에 나오는 다말과 대조한다.¹⁵ 그는 요셉이 주인의 아내에 대하여 거둔 승리는 속임수를 쓰는 사람에 대한 지혜 영웅의 승리이며, 다말을 비롯해 그 이전의 야곱 이야기에 등장하는,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으로 요셉이 제시된다고 이해

13 S. R. Driver, *An Introduction to the Literature of the Old Testament* (New York: Meridian Books, 1957), 17-19; E. A. Speiser, *윗글*, 304.

14 Christoph Levin, *윗글*, 223-240.

15 Peter Bekins, “Tamar and Joseph in Genesis 38 and 39”,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40.4 (2016), 375-397.

한다.¹⁶ 한편, 포스텔은 사무엘하 11-12장을 창세기 39장의 ‘반영 이야기(reflection story)’로 읽으면서 요셉의 행동을 다윗의 행동과 대조하는 관점에서 읽을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의 행동을 다윗의 행동에 비취 읽을 수 있는 틀을 제공하였다.¹⁷ 이러한 최근의 연구들 역시 요셉의 도덕적 우월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본문의 자료나 형성 과정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본문의 최종 형태에 주목하여 이야기 서술자의 의도에 집중할 것이다. 먼저 담화분석적 관점에서 본문이 참여자를 어떻게 지시하는지 살펴봄으로써 등장인물 서로 간의 관계를 본문이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관찰할 것이다. 또한 다말과 암논 이야기에 나오는 비슷한 표현을 살펴면서 요셉과 주인의 아내 이야기의 성격을 밝힐 것이다. 더 나아가 유혹에 관한 고대인들의 이해를 엿보기 위해, 잠언에 나오는 젊은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에 관한 가상적인 이야기를 들여다볼 것이다.

3. 참여자 지시

이야기에 나오는 여러 등장인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언급된다. 이를 ‘참여자 지시(participant reference)’라 부른다.¹⁸ 같은 등장인물이라도 이야기 서술자의 태도에 따라 여러 형태로 언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사람을 이름 등의 고유명사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명사구로 표현

16 윗글, 397.

17 Seth D. Postell, 윗글, 95-113.

18 이 용어는 Robert E. Longacre, *Joseph: A Story of Divine Providence, A Text Theoretical and Textlinguistic Analysis of Genesis 37 and 39-48* (2d ed.;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3), 139-154에서 따온 것이다.

할 수도 있고 대명사로 지시할 수도 있다. 히브리어의 경우 어두 형태소와 어미 형태소가 결합한 정동사의 활용형이 대명사 주어를 표현할 수 있어서 명시적인 표현 없이 동사의 활용형만으로 등장인물을 지시하기도 한다. 이처럼 이야기 서술자는 등장인물을 언급할 때 다양한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선택이 서술자의 의도를 드러내 준다. 예를 들어, 어떤 등장인물을 동사의 활용형만으로 지시해도 되는 상황에서 이름이나 명사구로 지시하는 데에는 서술자의 의도가 있다. 그와 반대로 특정 인물의 이름이나 그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 요셉

요셉은 ‘요셉’이라는 형태의 고유명사로 39장에 11번 나온다(1, 2, 4, 5, 6[2x], 7, 10, 20, 21, 22). 이 이야기에서 다른 인물이 이름으로 지시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요셉은 꾸준히 이름으로 언급된다. 그 가운데 요셉과 주인의 아내 이야기를 다룬 7-20절을 보아도 요셉의 이름은 세 번 언급되는데 세 번 모두 인용문이 아니라 이야기 서술자의 진술에서 언급된다.¹⁹ 먼저 7절에서는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보았다는 사실이 언급되고 10절에서는 그 여자가 ‘요셉’에게 날마다 말했다는 사실이 언급되고 20절에서는 보디발이 ‘요셉의 주인’으로 언급하는데 이 표현에서 ‘요셉’이 언급된다. 요셉은 주인의 아내가 바라보는 대상으로, 그 여자가 말을 거는 대상으로, 그리고 자기 주인을 모시는 사람으로 그려진다. 앞의 두 경우에는 ‘요셉’이 전치사 לְ- (엘-)의 목적어이고 마지막 경우에는 연계형 명사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처럼 이름으로 지시되는 ‘요

19 한편, Robert E. Longacre, *읽기*, 143은 요셉과 주인의 아내 사이의 갈등 장면을 다룬 이 부분에 요셉의 이름이 드물게 언급되는 점에 주목한다.

셉'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그려진다.

요셉은 대체 명사구로 지시되기도 한다. 주인의 아내는 집안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요셉을 **אִישׁ עִבְרִי**(이슈 이브리/어떤 히브리 남자)라고 부른다(14절). 이 표현은 요셉을 낮추어 부르는 표현으로 보인다. 웬햄은 이 표현에서 주인의 아내가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본다.²⁰ 주인의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말할 때에는 요셉을 가리켜 **הַבַּתָּ לָנוּ הָעִבְרִי אֲשֶׁר הָעֵבֶד הָאֵלֶּיךָ הַיְהוּדִי**(하에베드 하이브리 아세르 헤베타 라누/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그 히브리 종)이라고 한다(17절). 두 곳 모두에서 주인의 아내는 없는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다. 요셉을 범죄자로 몰아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셉의 인종과 신분과 끌려온 상태를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주인의 아내는 남편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셉의 신분을 분명히 드러내는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요셉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더 뚜렷이 드러냄으로써 남편의 화를 부추기려는 것이다. 남편은 신뢰했던 종이 자신을 배신하고 신분이 낮은 종이 고귀한 주인의 아내를 폭행하려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²¹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요셉은 **עַבְדְּךָ**(압데카/당신의 종)이라 불린다. “이런 식으로 **עַבְדְּךָ**(압데카/당신의 종)이 나한테 했어요.(19절)” 이처럼 주인의 아내는 요셉을 이름으로 언급하지 않고 그의 낮은 신분을 드러내는 표현을 일관되게 사용한다.

2) 보디발

창세기 39장 1절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요셉을 산 사람의 정체를 밝힌다. 그 사람은 **פּוֹטִיפָר סָרִיס פְּרִעָה שֶׁר הַטַּבָּחִים אִישׁ מִצְרַיִם**(포

20 Gordon J. Wenham, *읽글*, 376.

21 Robert Alter,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1981), 110.

티파르 스리스 파르오 사르 핫탐바힘 이슈 미츠리/보디발, 파라오의 신하, 시위대장, 이집트 사람)으로 소개된다. 사람의 이름에다 그 사람을 설명하는 여러 동격 명사구가 따르는 형태이다. 사람을 처음 소개할 때에는 다른 때보다 길게 소개하는 경향이 있다. 보디발은 이미 37장 36절에서 פּוֹטִיפָר סְרִיס פְּרַעֲהָ שֶׁר הַטְּבָחִים(포티파르 스리스 파르오 사르 핫탐바힘/보디발, 파라오의 신하, 시위대장)으로 소개된 적이 있다. 그러나 38장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시 요셉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오면서 그에 관한 자세한 소개를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 39장 1절 이후에 보디발은 이름으로 지시되지 않는다. 보디발은 2절에서 두 개의 명사구를 사용하여 אֲדֹנָי הַמִּצְרַיִם(아도나우 함미츠리/그의 주인 이집트 사람)으로 지시된다. 이어서 3절에서는 하나의 명사구만을 사용하여 אֲדֹנָי(아도나우/그의 주인)으로 지시되고 5절에서는 הַמִּצְרַיִם(함미츠리/이집트 사람)으로 지시되지만, 그 이후에는 אֲדֹנָי(아도나우/그의 주인)으로 지시된다(7, 8, 16, 19절). 또한 20절에서는 אֲדֹנָי יוֹסֵף(아도네 요세프/요셉의 주인)으로 지시된다. 8절에서는 요셉이 주인의 아내에게 말할 때 보디발을 가리켜 אֲדֹנָי(아도니/나의 주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아래의 (1)에서 볼 수 있듯이 요셉이 등장하지 않는 문맥에서도 보디발은 אֲדֹנָי(아도나우/그의 주인)으로 나온다. 여기서는 보디발을 אִשְׁתּוֹ(이샤호/그 여자의 남편)으로 지시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울 텐데도 요셉의 주인으로 지시함으로써 요셉의 취약한 위치를 드러낸다.

- (1) ‘요셉’이 등장하지 않는 문맥에서 보디발이 “그의 주인”으로 지시된 경우
- 가) 그는 그의 옷을 자기 곁에 내려놓고 그의 주인이 자기 집으로 올 때까지 기다렸다. (창 39:16)²²

22 「개역개정」은 אֲדֹנָי(아도나우/그의 주인)이라는 표현을 “자기 주인”으로 옮겨서 ‘그 여

וַתֵּנַח בְּגָדוֹ אֶצְלָהָ עַד-בּוֹא אֲדָנָיו אֶל-בֵּיתוֹ

나) 그의 주인은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한 말을 듣고 나서 (창 39:19)

וַיְהִי כַשְׁמֹעַ אֲדָנָיו אֶת-דְּבָרֵי אִשְׁתּוֹ אֲשֶׁר דְּבָרָה אֵלָיו

3) 보디발의 아내

창세기 39장에서 일반적으로 ‘보디발의 아내’로 알려진 인물은 실제 본문에서 단 한 번도 ‘보디발의 아내’로 지시되지 않는다. 맨 먼저 7절에 אִשְׁתֹּֽאֲדָנָיו(에세트 아도나우/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이 여자는 요셉의 주인의 아내로 소개되고 있다. 보디발이 요셉의 주인으로 언급되면서 그의 아내는 그의 주인의 아내로 나오는 것이다. 8절에서 요셉은 “그의 주인의 아내”에게 말한다. 9절에서 요셉은 이 여자를 2인칭 대명사 אַתְּ(아트/당신)으로 부르면서 그 여자가 אִשְׁתּוֹ(이슈토/그의 아내)라는 사실을 말한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는 계속해서 대명사나 동사의 인칭 어미로만 지시된다. 19절에서 서술자는 “그의 주인”이 “그의 아내”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이 여자는 한 번도 이름이 나오지 않고 요셉의 주인의 아내로만 등장한다. 따라서 이 여자의 제안은 한 개인의 욕망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주종 관계에서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에게 가하는 압력으로 나타난다. 특별히 서술자는 7절과 8절에서 요셉과 이 여자가 상호작용하는 장면에서 이 여자가 요셉의 주인의 아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사회적 신분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낸다.

자의 주인’으로 읽힐 수 있게 한다. 「공동개정」과 「새번역」 역시 “주인”으로 번역함으로써 이 사람이 ‘요셉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이러한 번역은 보디발과 요셉의 주종 관계를 드러내는 원문 표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www.kci.go.kr

4) 참여자 지시와 요셉의 위치

이야기 서술자는 요셉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름으로 지시하고 있지만, 그에게 능동적인 역할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주인의 아내가 집안 사람들이나 남편과 나눈 말을 옮긴 대화문에서는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려고 낮은 지위를 드러내는 용어로 요셉을 지시한다. 보디발은 처음에 이름과 동격 명사구들로 장황하게 소개되는 것을 제외하면, 주로 요셉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지시되는 것 외에는 이야기 안에 숨어 있다. 더 나아가 요셉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보디발의 아내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으며 요셉의 ‘주인의 아내’라는, 신분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만 지시된다. 이렇게 해서 이 단락 전체의 참여자 지시는 요셉과 주인의 아내의 신분적 차이를 도드라지게 드러낸다.

4. 다말과 암논 이야기에 비추어 읽기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다말과 암논 이야기에서 다윗의 아들인 암논은, 어머니가 다른 여동생 다말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 폭행하려 한다. 다말은 암논의 요구를 거절하지만 암논은 힘으로 다말을 제압하고 폭행한다. 그리고 나서 암논은 다말을 내쫓는다. 이온에는 피해자인 다말의 관점에서 다말과 암논 이야기를 해석하면서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 왕가의 남자들이 저지른 권력형 성폭력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²³ 창세기 39장의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이야

23 이온애, “권력과 성폭력: 사무엘하 13:1-22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73집 (2019년 9월), 217-245.

기와 사무엘하 13장의 다말과 압논 이야기에는 비슷한 내용이 여럿 발견된다.²⁴ 이러한 유사점 가운데 몇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받으려 한다.

1) 피해자의 외모

아래의 (2)에서 보듯이 요셉과 다말은 모두 ‘아름답다’라는 형용사를 사용하여 묘사된다.

(2) 요셉과 다말의 외모에 관한 묘사

가) 요셉은 모습이 아름다웠고 보기에 아름다웠다. (창 39:6)

וַיְהִי יוֹסֵף יָפֶה-תֹּאֵר וַיְפָה מְרָאָה

나)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름다운 여동생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삼하 13:1)

וְלֵאבִשָׁלוֹם בְּיָדוֹר אָחוֹת יָפָה וְשֵׁמָּה תָמוּר

요셉과 주인의 아내 사이에 일어난 일에 관해 말하기에 앞서 이야기 서술자는 요셉의 외모에 관해 언급한다. 본문에 따르면 요셉은 “모습이 아름다웠고 보기에 아름다웠다”(창 39:6). 요셉의 어머니 라헬에 관해서 **יָפֶת-תֹּאֵר וַיְפָה מְרָאָה**(여파트-토아르 위파트 마르에/모습이 아름다웠고 보기에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창 29:17) 남자에 관해서는 이런 표현이 구약성서의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다. 요셉의 외모에 관한 묘

24 자코비치(Y. Zakovitch)는 두 이야기 사이에 다음과 같은 유사점이 있다고 한다. 1) 압논이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낸 것과 보디발의 집에 아무도 없었던 점, 2) 피해자의 미모가 뛰어난 것으로 묘사되는 점, 3) 성관계를 강요하는 간결한 명령형 표현, 4) 피해자가 성관계를 “이 악한 일”로 규정하고, 피해를 겪은 다음 집을 떠나며, 피해자의 옷이 부정적으로 언급되는 점, 5) 가해자들이 종들의 도움을 받는 점, 6) 일어난 일에 관해 들은 피해자의 가족, 즉 남편이나 아버지가 화를 내는 점이다. Yair Zakovitch, *Through the Looking Glass: Reflection Stories in the Bible* [히브리어] (Tel Aviv: HaKibbutz HaMeuhad, 1995), 81-83을 Seth D. Postell, 원글, 105-106에서 재인용.

사는 요셉 이야기 전체에서 이곳에만 나온다. 그것은 이 진술이 뒤이어 나오는 주인의 아내와 관련된 사건의 결정적인 배경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사르나(N. Sarna)는 이 진술이 이곳에 나옴으로써 전적으로 다음 단락을 소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²⁵ 한편, 주인의 아내의 외모에 관해서는 아무런 진술도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본문은 주인의 아내가 스스로 유혹을 받고 있으면서 그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요셉이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2나)의 다말과 암논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이야기 서술자는 다말을 압살롬의 “아름다운” 여동생이라고 소개한다. (2가)에서 요셉의 외모를 묘사하는 단어와 같은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다. 암논은 보디발의 아내처럼 자신의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힌다.²⁶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성관계를 하려고 계획적으로 행동한 것처럼 암논도 요나답의 도움을 받아 다말과 성관계를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행동으로 옮긴다.

2) 가해자의 요구

주인의 아내와 암논은 모두 명령형을 사용해 성관계를 요구한다.

(3) 주인의 아내와 암논의 요구

가)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바라보고서 말했다. “나와 함께 눕자.” (창 39:7)

וַיְהִי אַחֲרֵי הַדְּבָרִים הָאֵלֶּה וַתִּשָּׂא אִשְׁת־אֲדָמָי אֶת־עֵינֶיהָ
אֶל־יוֹסֵף וַתֹּאמֶר שִׁכְבָה עִמִּי

25 Nahum Sarna, *Genesis: The Traditional Hebrew Text with the New JPS Translation*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272.

26 이은애, 윗글, 225 n. 22는 다말과 밋세바와 같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아름다움이 성적인 욕망의 이유가 되는” 경우로 요셉을 언급한다.

나) 그는 그의 옷을 붙잡고 말했다. “나와 함께 늙자.” (창 39:12)

וַתִּתְפָּשֶׂהוּ בִּבְגָדוֹ לֵאמֹר שָׂכְבָה עִמִּי

다) 그는 그를 붙들고 그에게 말했다. “저기, 나와 함께 늙자, 내 동생아.” (삼하 13:11)

וַיִּחְזְקֵהָ וַיֹּאמֶר לָהּ בּוֹאִי שָׂכְבִי עִמִּי אַחֲוִיתִי

(3가)와 (3나)의 번역에서는 주인의 아내가 한 말을 청유형으로 옮겼지만 원문에 따르면 주인의 아내는 요셉에게 명령형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요구한다. 이 두 곳에서 주인의 아내의 말은 아주 짧은 두 단어로 인용되어 있다. 주인의 아내가 하는 말은 청유형이 아니라 명령형이다. שָׂכְבָה (시크바/누워라)는 שָׁכַב (샤카브/눕다)의 명령형이다.²⁷ 명령문을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נָ (나)가 붙어 있지도 않다.²⁸ 이런 문법적인 형태를 들며 브렛은 주인의 아내가 “힘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한다.²⁹ 베스터만은 여기서 주인의 아내가 “종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여주인의 언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본다.³⁰ 사르나도 이러한 단도직입적인 표현은 종이라는 요셉의 현재 신분에 대한 주인의 아내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³¹ 롱에이커(R. E. Longacre)는 주인의 아내와 요셉이 나눈 대화를 이렇게 분석한다. “보

27 “시크바(שָׂכְבָה)”는 단순한 형태의 남성 단수 명령형인 “슈카브(שָׁכַב)”에 ‘ה’ 모음이 결합한 형태이다. Christo H. J. van der Merwe et al., *A Biblical Hebrew Reference Grammar* (Biblical Languages: Hebrew 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150에 따르면 이 모음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28 נָ(나)는 명령형에 붙어서 요청을 좀 더 부드럽고 공손하게 표현하기 위해 흔히 사용된다. Christo H. J. van der Merwe et al., *A Biblical Hebrew Reference Grammar* (2d ed.; London: T&T Clark, 2017), 171.

29 Mark G. Brett, *읽글*, 115. 브렛은 창세기 38장 16절에서 유다가 성매매를 하는 장면에서 조차도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어 נָ(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30 Claus Westermann, *읽글*, 65.

31 Nahum Sarna, *읽글*, 273.

다말의 아내가 대화의 흐름을 주도한다. 그는 말싸움에서 선제공격을 하고 요셉은 최선을 다해 그 공격을 막아 내야 한다.”³²

대화의 상대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장면에서 (3가)와 (3나)에 나오는 עָמִי וְכַבֵּדָה(시카바 임미)와 같은 표현이 사용된 곳은 구약성서에서 (3다)밖에 없다.³³ 다말이 먹을 것을 준비해서 암논에게 가져오자 암논은 다말을 잡으면서 말하는데, 이 표현 앞에 ‘오다’의 명령형 בּוֹא(보이)로 말을 시작하고 뒤에 אֲחִי(아호티/내 동생)이라는 호격 표현을 사용한다. ‘오다’의 명령형은 이 동사의 전형적인 의미를 잃고, 뒤이어 나오는 명령형을 소개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³⁴ “내 동생아”라는 표현은 실제로 여동생을 부르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 문맥에서는 친근감을 보이려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³⁵ 암논은 다말을 폭행한 다음 내쫓는데 이때 다말에게 하는 말도 두 동사의 명령형, קוּמִי לָכִי(쿠미 레키/일어나가 거라)로 짧게 표현되어 있다(삼하 13:15).

(3가)와 (3나)에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한 말은 간결하면서 억압적이고 폭력적이다. (3다)의, 암논이 다말에게 하는 말에 사용된 표현보다 더 간결하고 직접적이며 투박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주인의 아내가 한 일을 일반적인 의미에서 ‘유혹’이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

32 Robert E. Longacre, *읽글*, 184-185.

33 이 두 곳 외에 כַּבֵּדָה(사카브/눅다)의 명령형이 전치사 עִמִּי(임/~와 함께)와 더불어 사용된 경우는 창세기 19장 34절에 나오는 롯의 딸들의 대화 장면이다. 이 장면은 대화 상대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장면이 아니라 롯의 첫째 딸이 자기 동생에게 자기처럼 아버지와 “함께 누우라”라고 제안하는 상황이다.

34 이런 명령형을 Christo H. J. van der Merwe et al., *읽글* (2017), 167-168은 “준비의 명령형(imperatives of preparation)”이라 부른다.

35 P. Kyle McCarter, Jr., *II Samuel: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Notes and Commentary* (AYB 9; New Haven/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4), 322는 이 표현이 사랑의 시에 나오는 표현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David Toshio Tsumura, *The Second Book of Samuel* (NICOT; Grand Rapids: Eerdmans, 2019), 206 역시 이 표현이 사랑의 시에 나오는 전통적인 용어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다.

3) 피해자의 대응

(3가)와 (3나)에 인용된, 주인의 아내가 사용한 짧은 명령문과 (3다)에 인용된, 압논이 사용한 짧은 명령문에 대한 요셉과 다말의 대답은 (4가)와 (4나)처럼 비교적 길게 나온다.

(4) 요셉과 다말의 저항

가) 그는 거절하며 그의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다. “보세요. 주인님은 집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나한테 알아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한테 있는 것을 모두 내 손에 넘겨주신 것이지요. 그분은 이 집에서 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못하게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님 말고는요. 마님은 그분의 아내이니까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이 큰 나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르겠습니까? (창 39:8-9)

나) 그가 그에게 말했다. 안 돼요, 오빠. 나를 억누르지 마세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부끄러움을 어디로 가져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오빠는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임금님한테 말씀드려 보세요. 나를 오빠한테 주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삼하 13:12-13)

(4가)에서 요셉은 주인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먼저 자신에 대한 주인의 신뢰를 언급하며 그 신뢰를 저버릴 수 없다고 하면서 **הַרְעָה הַגְּדֹלָה הַזֹּאת** (하라아 학그돌라 핫조트/이 큰 나쁜 짓)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한다. 요셉은 주인에 대한 범죄와 하나님께 저지르는 범죄라는 두 개념을 사용하여 간음에 관한 당시 사회의 규범과 태도에 호소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서남아시아

www.kci.go.kr

아의 법 전통에 따르면 간음은 어떤 남자가 결혼한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이었다.³⁶ 남자가 결혼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간음은 여자와 결혼한 남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남편에 대한 범죄였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남편이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관련된 남자를 처벌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동시에 간음은 신에 대한 범죄였기 때문에 신에게 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였다.³⁷ 요셉은 단순히 성적인 유혹을 피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법이 금지하는 일을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 한 것이다.

(4나)에서 다말은 암논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비교적 길게 이유를 제시한다. 다말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며 거절한다.³⁸ 암논이 하려는 일을 **אֲנִי וְהַגְּבֻרִים** (한느발라 핫조트/이 어리석은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한다. 맥카터(P. Kyle McCarter)는 “어리석은 일”은 “사회의 구조를 정의하고 유지하는 신성한 금기 사항을 범하는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사회 자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라고 본다.³⁹ 다말은 암논에게, 아버지에게 말하면 자기와 결혼하는 것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주인의 아내에 맞서는 요셉과 마찬가지로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적절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다.⁴⁰ 더 나아가 암논이 폭행을 저지른 다음 자신을

36 Raymond Westbrook, “Adultery in Ancient Near Eastern Law”, Bruce Wells/Rachel Magdalene(ed.), *The Shared Tradition*, vol. 1 of *Law from the Tigris to the Tiber: The Writings of Raymond Westbrook*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9), 246.

37 Raymond Westbrook, *윗글*, 283.

38 이은애, *윗글*, 233은 “성적, 감정적 욕구에 근거한 암논의 짧은 말과 대조적으로 다말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긴 설득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옳은 판단과 행위를 요구하는 그녀의 지혜와 용기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39 P. K. McCarter, Jr., *윗글*, 322-323, 327-328.

40 Phyllis Trible, *Texts of Terror: Literary-Feminist Readings of Biblical Narrative* (OBT 13; Philadelphia: Fortress, 1984), 45-46.

내쫓으려 하는 일을 **הַרְעָה הַגְּדֹלָה הַזֹּאת** (하라아 학그돌라 핫조트/이 큰 나쁜 짓)이라고 규정하는데 이 표현은 주인의 아내 앞에 선 요셉이 사용한 것과 같은 표현이다(삼하 13:16; 창 39:9).

사르나는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두고 그의 “도덕적 우월성(moral excellence)”을 칭찬한다.⁴¹ 물론 요셉의 행동이 도덕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요셉의 도덕적 우월성을 말하는 것은 다말의 도덕적 우월성을 말하고 있는 것만큼이나 적절하지 않다. 요셉은 주인의 아내의 위협적이고 폭력적이며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암논은 다말을 폭력적으로 대하고 있으며 주인의 아내도 요셉을 폭력적으로 대하고 있다. 요셉과 다말은 폭력을 사용하려는 사람 앞에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당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에 기대어 저항하고 있다.

4) 가해자의 행동

요셉의 주인의 아내와 암논의 폭력성은 (3)에 나오는, 그들의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3)의 내용을 (5)로 다시 옮긴다.

(5) 주인의 아내와 암논의 요구

가)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바라보고서 말했다. “나와 함께 눕자.” (창 39:7)

וַיְהִי אַחֲרֵי הַדְּבָרִים הָאֵלֶּה וַתִּשָּׂא אִשְׁת־אֲדֹנָיו אֶת־עֵינֶיהָ
אֶל־יוֹסֵף וַתֹּאמֶר שְׁכַבְהָ עִמִּי

나) 그는 그의 옷을 붙잡고 말했다. “나와 함께 눕자.” (창 39:12)

וַתִּתְפַּשְׂהוּ בְּבִגְדוֹ לֵאמֹר שְׁכַבְהָ עִמִּי

다) 그는 그를 붙들고 그에게 말했다. “저기, 나와 함께 눕자, 내 동생

41 Nahum Sarna, *위글*, 273은 종들의 세계가 성적으로 난잡했다고 전제한 후 이런 상황에서 당시 좋았던 요셉의 행동의 도덕적 탁월성을 더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르나는 그렇게 전제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아.”(삼하 13:11)

וַתִּחַיֶּקֶבָהּ וַיֹּאמֶר לָהּ בּוֹאִי שִׁכְבִּי עִמִּי אַחֲוֹתִי

(5가)에서 주인의 아내는 요셉을 바라본 다음에 성관계를 요구한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바라본 것은 문맥에서 볼 때 성적 대상으로 요셉을 바라본 것이다. 한글 번역본들은 동사 נָשָׂא(나사/들어올리다)에 명사 עֵינַי(아인/눈)이 결합된 이 표현을 흔히 ‘눈짓하다’로 번역하여 마치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상황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그렇게 옮길 만한 근거는 없다.⁴² 더 나아가 (5나)에서 주인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붙잡으며 성관계를 요구한다. שָׁפַשְׁפַּשׁ(타파스/붙잡다)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대상에 대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경우 흔히 사용되며 폭력적인 행동을 암시한다(신 9:17; 22:28; 왕상 11:30).⁴³ 압논도 성관계를 요구하기 전에 다말을 붙든다(삼하 13:11).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קִינָה(하자크/붙들다)의 히필 형이다. 이 동사는 어원적으로 볼 때 물리적인 힘을 드러내고 있으며 폭력적인 행동의 맥락에서 흔히 사용된다. 아래의 (6가)에서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와 약혼한 여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설명할 때 קִינָה(하자크/붙들다)의 히필 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6나)에서는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여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설명할 때에 שָׁפַשְׁפַּשׁ(타파스/붙잡다)를 사용한다.

(6) ‘하자크’와 ‘타파스’

가) 그 남자가 그를 붙들고 그와 함께 누우면 (신 22:25)

וַתִּחַיֶּקֶבָהּ הָאִישׁ וְשָׁכַב עִמָּהּ

42 해당 표현을 「개역개정」은 “눈짓하다가”로 옮기고 「공동개정」과 「새번역」은 “눈짓을 하며”로 옮긴다.

43 R. Liwak, “שָׁפַשְׁפַּשׁ *tsps*”, *TDOT* 15:745; Nahum Sarna, *윗글*, 274; Gordon J. Wenham, *Genesis 16-50*, 376.

나) 그가 그를 붙잡고 그와 함께 누우면 (신 22:28)

וְהִשָּׁבְתָּ אִתּוֹ וְנָשָׂב עִמּוֹ

사실상 두 동사는 같은 문맥에서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로 사용된다. 따라서 요셉 이야기에 사용된 **וְנָשָׂב**(타파스/붙잡다)와 다말 이야기에 사용된 **וְנָשָׂב**(하자크/붙들다)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5나)와 (5다)에 사용된 이 동사들을 뒤따르는 표현은 **עַם כְּבִיב**(샤카브 임/~와 함께 눕다)인데, (6가)와 (6나)에서도 같은 표현이 이 동사들 뒤에 나온다. (5)와 (6)은 모두 상대방을 붙잡아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려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물론 암논은 물리적인 힘이 약했던 다말을 폭행하고 주인의 아내는 달아날 힘이 있었던 요셉의 저항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지만, 요셉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의 아내는 다말 이야기에 나오는 암논만큼이나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5. ‘유혹’과 요셉 이야기

주석가들은 요셉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흔히 잠언에 나오는 유혹하는 여자의 이미지를 끌어들이는다.⁴⁴ 잠언의 해당 구절들을 보면 성적인 유혹에 관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잠언에서 성적인 유혹에 관해 묘사하는 장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잠언은 남자들에게 주는 교훈에서 **לְשׁוֹן נְכָרִיָּה מִחֶלְקַת נֹכְרִיָּה**(메헬카트 라손 노크리아/외국 여자가 부드럽게 하는 말

44 예를 들어, Gordon J. Wenham, *룻*, 378은 보디발의 아내가 잠언에 나오는, “도덕성이 의심스러운 외국 여자의 한 예”라고 본다. 월터 브루거만, 「창세기: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한 주석」, 470은 “이방 여인의 유혹이 남자와 그의 장래를 다 망친다”라고 보는 “지혜의 가르침”을 언급하면서 잠언 6장 23-26절과 7장 10-20절을 참조하라고 한다.

에서)(잠 6:24)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에 관해 말하기도 하고 **הַחֲלִיקָה מִנְּוֹכְרֵיָהּ אִמְרֵיהָ זָרָה מִנְּוֹכְרֵיהָ אִמְרֵיהָ**(메잇샤 자라 민노크리야 아마레하 헤헬리카/ 낫선 여자를, 말을 부드럽게 하는 외국 여자를)(잠 7:5) 조심하라고 하기도 한다.⁴⁵

잠언 7장 5절에 이어 나오는 가상의 이야기에서 이런 여자가 젊은 남자를 유혹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7:6-23). 뉘머는, 외국 여자에 관해 경계하는 이 잠언의 이야기를 창세기 39장의 저자가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가정한다.⁴⁶ 이 구절의 상당 부분(7:14-20)은 여자가 젊은 남자를 유혹하는 말로 이루어져 있다. 여자는 화려하고 향기로운 침대와 즐거움을 내세워 젊은 남자를 유혹한다(7:16-19). 이 여자는 젊은 남자를 **לְקַחְתָּ רֶבֶב**(로브 리크하흐/길게 설득하는 자신의 말)과 **חֵלֶק שְׂפָתֶיהָ**(헬레크 스파테하/그의 입술의 부드러운 말)(7:21)로 꾀다. 이런 여자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젊은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여자를 따라가는 것으로 묘사된다(7:22). 창세기 39장에서 주인의 아내는 요셉에게 짧고 통명스럽고 간략한 명령형을 사용하여 말하고 있으며 요셉은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을 비교적 길게 늘어놓으면서 주인의 아내의 제안을 거부한다.

많은 학자는 이집트의 ‘형제 이야기’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와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 사이의 공통점에 주목해 왔다. 뉘머는 두 이야기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하는 최근 연구를 바탕으로 창세기 39장의 저자가 ‘형제 이야기’를 알고 있었으며 이 이야기를 자신의 목적에

45 여기에 나오는 **הַחֲלִיקָה מִנְּוֹכְרֵיָהּ**(잇샤 자라/낫선 여자)와 **מִנְּוֹכְרֵיָהּ**(노크리야/외국 여자)의 정체에 관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에 관해서는, 안근조, “잠언의 ‘낫선 여자’ 경계를 통해서 본 지혜와 율법과의 관계”, 『구약논단』 73집 (2019년 9월), 76-78을 보라. 안근조, 윗글, 89에서는 이런 여자를 실제 인물로 보지 않고 악인의 길을 상징한다고 본다.

46 Thomas Römer, 윗글, 55-56은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창세기 39장이 요셉 이야기에 들어온 시기를 기원전 4세기 말로 본다.

맞게 변형시켜서 요셉 이야기에 삽입했다고 생각한다.⁴⁷ 이 이야기에서 안푸의 동생 바타는 아무도 없는 집에 곡식 씨앗을 가지러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형수의 유혹을 받는다. 형수가 바타에게 하는 말은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했던 간절한 명령과는 다르다.

(7) ‘형제 이야기’에서 형수의 유혹

“와서 함께 누워 시간을 보내자. 너한테 좋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멋진 옷을 만들어 줄게.”⁴⁸

형수는 바타를 유혹하면서 자기 말을 따르면 바타에게 좋을 것이고 자기가 거기에 대한 대가로 바타에게 옷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제안한다. 바타는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표범처럼” 변하여 형수를 꾸짖는다.⁴⁹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요셉과 주인의 아내 사이처럼 주종 관계가 아니고, 형수는 바타가 누릴 혜택을 제시하면서 부드러운 말로 그를 설득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요셉은 유혹받은 것이 아니라 괴롭힘을 당하며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유혹을 느낀 것은 요셉이 아니라 주인의 아내일 것이다. 실제로 타드모르(H. Tadmor)는 주인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섬기는 잘생긴 젊은 종에게 강한 유혹을 받았다”라고 한다.⁵⁰ 사르

47 Thomas Römer, *윗글*, 54-55. 일찍이 Claus Westermann, *윗글*, 65도 창세기 39장 7-20 절의 저자가 ‘형제 이야기’를 몰랐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주석가들의 의견에 반대하면서, 이 저자가 ‘형제 이야기’를 각색하여 독립적인 이야기로 만들어 요셉 이야기에 삽입했다고 주장하였다.

48 Miriam Lichtheim, “The Two Brothers,” *The Context of Scripture* 1.40 (1:85).

49 *윗글*, 1:85-86.

50 Hayim Tadmor, “Was the Biblical *sārīs* a Eunuch?”, Ziony Zevit et al. (ed.), *Solving Riddles and Untying Knots: Biblical, Epigraphic, and Semitic Studies in Honor of Jonas C. Greenfield*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5), 321. 여기서 H. Tadmor는 창세기 37장 36절과 39장 1절에 보디발을 가리키는 단어 סַרִּיס(사리스)가 ‘내시’를 뜻한다고 본다.

나 역시 주인의 아내가 “집안의 여주인이면서 자기 남편의 종을 향한 욕망의 종”으로 나온다는 점을 지적한다.⁵¹ 요셉이 유혹을 받았다면 그것은 힘 있는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그 요구를 들어주고 순응하려는 유혹일 수 있다.⁵² 물론 본문은 이러한 유혹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

창세기 39장은 억압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지켜 내고 결국 야훼가 함께하심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되는 한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물론 요셉이 주인과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는 장면은 요셉이 도덕적인 인물임을 드러내 준다. 그러나 도덕적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이 본문의 중심 목적은 아니다. 트리블(P. Trible)에 따르면, 사무엘하 13장에서 암논의 악은 “그 자신의 욕망이었고 거기로부터 다른 사람들은 보호가 필요했다.”⁵³ 창세기 39장의 요셉도 마찬가지였다. 주인의 아내의 악은 자신이 가진 욕망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행사하려는 욕구였고 그 악으로부터 요셉은 보호가 필요했다. 요셉과 주인의 아내 이야기 전후에 야훼가 요셉과 함께하셨다는 말이 반복되는 것은 야훼가 바로 이런 보호를 고통받는 약자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드러내 준다.⁵⁴

51 Nahum Sarna, *읽글*, 273.

52 Bruce K. Waltke, *Genesis: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1), 520.

53 Phyllis Trible, *읽글*, 56.

54 야훼가 요셉과 함께하셨다는 진술은 요셉 이야기 가운데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고 창세기 39장에만 네 차례 나온다(창 39:2, 3, 21, 23).

6. 결론

우리는 요셉과 주인의 아내 이야기에서 주인의 아내의 요구가 어떤 성격을 띠는지를 이야기 서술자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먼저 본문이 참여자들을 어떻게 지시하는지 살핌으로써 요셉이 중심인물이지만 수동적으로 그려지고, 주인과 그의 아내는 요셉과의 주종 관계를 중심으로 지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언급할 때 그의 낮은 지위를 드러내는 혐오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도 보았다. 또한 이 이야기와 다말과 암논 이야기의 비슷한 표현을 비교하면서 주인의 아내의 말과 행동의 폭력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잠언에 나오는 유혹 이야기나 이집트 '형제 이야기'에 나오는 표현 역시 요셉이 겪은 일을 '유혹'으로 정의하기 어렵게 한다.

창세기 39장의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 온 종이었다. 비록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지만 요셉은 계속해서 종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보디발과 그의 아내는 요셉의 주인과 그 주인의 아내로 묘사된다. 주인의 아내는 힘없는 종에게 자신의 힘을 행사하려 했고 그 종은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그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감옥에 갇히게 된다. 요셉은 유혹받은 것이 아니라 학대와 압력을 받은 것이고 거기에 저항한 것이다. 요셉이 부당한 압력을 받기 전(창 39:2, 3)과 부당한 압력에 저항하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후(창 39:21, 23) 모두 야훼가 요셉과 함께하셨다는 진술이 나온다. 야훼가 요셉과 함께하신 것은 요셉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압력을 받고 그 압력에 저항하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바로 그때 그분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안근조, “잡언의 ‘낯선 여자’ 경계를 통해서 본 지혜와 율법과의 관계”, 『구약논단』 73집 (2019년 9월), 74-101.
- 윌터 브루거만, 「창세기: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한 주석」 (강성열 옮김), (서울: 한국 장로교출판사, 2000). 원제는 Brueggemann, Walter, *Genesis (Interpretation)*: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 이은애, “권력과 성폭력: 사무엘하 13:1-22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73집 (2019년 9월), 217-245.
- 천사무엘, 「창세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Alter, Robert,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1981).
- Bekins, Peter, “Tamar and Joseph in Genesis 38 and 39,”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40.4 (2016), 375-397.
- Brett, Mark G., *Genesis: Procreation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OTR; London: Routledge, 2000).
- Driver, S. R., *An Introduction to the Literature of the Old Testament* (New York: Meridian Books, 1957).
- Goldingay, John, *Genesis* (BCOTP;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20).
- Hamilton, Victor P., *Handbook on the Pentateuch* (2d ed.;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5).
- Levin, Christoph, “Righteousness in the Joseph Story: Joseph Resists Seduction (Genesis 39)”, Thomas B. Dozeman (ed.), *The Pentateuch: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Current Research* (Tübingen: Mohr Siebeck 2011), 223-240.
- Lichtheim, Miriam, “The Two Brothers,” *The Context of Scripture* 1.40 (1:85-89).
- Liwak, R., “פְּסָחִים”, *TDOT* 15:745-753.
- Longacre, Robert E., *Joseph: A Story of Divine Providence, A Text Theoretical and Textlinguistic Analysis of Genesis 37 and 39-48* (2d ed.;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3).
- McCarter, P. Kyle, Jr., *II Samuel: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Notes and Commentary* (AYB 9; New Haven/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4).
- Postell, Seth D., “Potiphar’s Wife in David’s Looking Glass: Reading 2 Samuel 11-12 as a Reflection Story of Genesis 39”, *Tyndale Bulletin* 71.1 (2020), 95-113.
- Römer, Thomas, “Genesis 39 and the Composition of the Joseph Narrative”, *Hebrew*

Bible and Ancient Israel, 8.1 (2019), 44-60.

- Sarna, Nahum, *Genesis: The Traditional Hebrew Text with the New JPS Translation*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 Speiser, E. A., *Genesis: Introduction, Translation, and Notes* (3d ed.; AB 1; Garden City, NY: Doubleday, 1987).
- Tadmor, Hayim, “Was the Biblical *sārīs* a Eunuch?”, Ziony Zevit et al.(ed.), *Solving Riddles and Untying Knots: Biblical, Epigraphic, and Semitic Studies in Honor of Jonas C. Greenfield*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5), 317-325.
- Trible, Phyllis, *Texts of Terror: Literary-Feminist Readings of Biblical Narrative* (OBT 13; Philadelphia: Fortress, 1984).
- Tsumura, David Toshio, *The Second Book of Samuel* (NICOT; Grand Rapids: Eerdmans, 2019).
- Van der Merwe, Christo H. J. et al., *A Biblical Hebrew Reference Grammar* (Biblical Languages: Hebrew 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 Van der Merwe, Christo H. J. et al., *A Biblical Hebrew Reference Grammar* (2d ed.; London: T&T Clark, 2017).
- Waltke, Bruce K., *Genesis: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1).
- Wenham, Gordon J., *Genesis 16-50* (WBC 2; Dallas: Word, 1994).
- Westbrook, Raymond, “Adultery in Ancient Near Eastern Law”, Bruce Wells/Rachel Magdalene(ed.), *The Shared Tradition, vol. 1 of Law from the Tigris to the Tiber: The Writings of Raymond Westbrook*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9), 245-287.
- Westermann, Claus, *Genesis 37-50* (John J. Scullion, S.J., trans.; CC; Minneapolis: Fortress, 2002).
- Zakovitch, Yair, *Through the Looking Glass: Reflection Stories in the Bible* (Tel Aviv: HaKibbutz HaMeuhad, 1995).

검색어

창세기 39장, 요셉, 보디발의 아내, 유혹, 참여자 지시, 사무엘하 13장, 잠언 7장

www.kci.go.kr

[ABSTRACT]

Violence in the Story of Joseph and His Master's Wife

Yoo-Ki Kim

Seoul Women's University

This article raises a question whether the advances of Potiphar's wife to Joseph in Genesis 39 can be termed as a seduction. It aims at defining the interactions between Joseph and Potiphar's wife in a way that reflects what the narrator thinks Joseph went through in the story.

We begin by investigating the means of participant reference. We examine how Joseph, Potiphar, and his wife are referred to in the story. Then, we compare some expressions of Genesis 39 with those of 2 Samuel 13, the story of Tamar and Amnon. We also look into the story in Proverbs 7 that deals with the seduction of a young man by a married woman, to take a glimpse of what constitutes a seduction in the ancient world.

Joseph is often mentioned by name by the narrator but in direct discourse his master's wife refers to him with derogatory expressions. Potiphar is mentioned by name only once at the beginning of the story and afterwards referred to as Joseph's master. His wife's name never appears, while she is referred to as "his master's wife." The comparison of this story with the story of Tamar and Amnon shows that both Joseph and Tamar are portrayed as "beautiful" and that their counterparts order them to "lie with me" after seizing them while they themselves resist

www.kci.go.kr

the violence with reasonable verbal responses. The images of a seductive woman and a young man in the story of Proverbs 7 are at odds with those of Potiphar's wife and Joseph, respectively.

The means of participant reference in the story portray Joseph as a powerless slave to his master. The words and actions of Potiphar's wife are shown to be as violent as those of Amnon. Potiphar's wife was certainly not a seductive woman the story in Proverbs 7 describes, while Joseph was not seduced but harassed by his master's wife.

key words

Genesis 39, Joseph, Potiphar's Wife, Seduction, Participant Reference, 2 Samuel 13, Proverbs 7

투고일: 2023년 01월 25일

심사일: 2023년 02월 11일

게재 확정일: 2023년 02월 16일

www.kci.go.kr